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3. 계시를 주시는 분들의 신상

2013. 01. 20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를 주시는 분들의 신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려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분들이 어떤 신분인지 자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4~6]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계시록의 기록 목적 중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봉독하신 본문 중에서 그 일곱 교회 이름이 등장하네요.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답: 그것은 2장에 그 상태에 대한 기록들이 있으니 그때 자세히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지요. 이 교회들은 지리적으로 재미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당시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통칭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소아시아지방이지만, 터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2. 재미있는 위치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리적 위치에도 재미가 있습니까?

답: 글썄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지리적 배열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생각했습니다.

3. 지리적 배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답: 사실은 지리적 배열뿐만 아니고 그 이름들도 의미가 있지요. 사실 계시록 2,3장에 일곱 교회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교회들에게 보낼 편지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봉독한 4절에 의하면 2,3장의 내용만을 그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전체가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히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가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지리적 위치가 다 복음의 진

행과 종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름뿐만 아니라 그 배열된 지리적 위치도 참 재미있습니다.

4. 지리적 배열이 어떤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지요? 자세히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답: 계시록의 일곱 교회 지도를 보면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서머나가 있고, 더 북쪽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남쪽으로 두아디라가 있고, 남쪽으로 사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남쪽으로 빌라델비아가 있고, 다시 동남쪽으로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처음 시작한 에베소에서 동남쪽에 있습니다. 물론 좀 멀긴 하지만요. 지리적 배열을 보면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작한 에베소가 있는 지역 쪽으로 내려오는 배열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순환하는 모양의 배열입니다. 또 그 이름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으뜸 제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서머나는 몰약인데 이것은 두드러질수록 향이 짙어지는 성질을 가진 향료이름입니다. 다음은 버가모인데 성채(城砦)니까 높이 들렸다는 뜻입니다. 두아디라는 고난의 향내라는 뜻이고, 사데는 즐거움의 찬송이라는 뜻이며, 혹은 남아 있는 것, 남은 자의 도망이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우애이고 라오디게아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들은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말고는 성경 다른 곳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도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너희가 읽고 너희에게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도록 하라는 말이 한 번 있을 뿐이지요. 나머지 교회들은 신약성경에서 아주 생소한 교회입니다. 골로새교회는 분명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어도 일곱 교회 이름에는 빠졌습니다. 골로새는 그 이름이 크다, 또는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선택되었고 골로새는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그 교회 이름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비록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였지만 그 교회들의 지역 배열과 이름의 뜻이 계시록 전체의 역사적 전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5. 참 재미있는 관찰입니다. 지리적 배열과 이름의 뜻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답: 2장에서 일곱 교회를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나누기로 하고 오늘 봉독한 본문을 살피도록 합시다. 4절에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위치와 이름의 뜻에 대하여 긴 말씀을 나누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편지를 하시는 분의 신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첫째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를 말씀합니다. 이런 호칭은 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나타납니다. 즉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과 또 다음으로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언급됩니다. 그분은 성령이시지요. 마지막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됩니다. 결국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곧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힙니다.

6. 삼위일체를 말씀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순서와는 다르군요.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답: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8:19에 나타나는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차례가 무슨 지위 서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위서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세 이름을 한꺼번에 말하려니까 차례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생긴 차례일 뿐인데 그것을 아버지는 아들보다 높고, 아들은 성령보다 높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삼위의 순서를 바꾸어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예, 그렇군요. 성경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 청취자들이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주시지요.

답: 예, 우선 목사님들이 축도로 사용하는 고후13:13은 예수님을 첫째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으로 차례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고전 12장 4~6에 은사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하여 성령을 첫째로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차례가 서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의 영감을 주실 때에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시록의 본문은 아버지 성령 아들의 차례로 나타났지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해할 때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삼위는 동일하게 그 이름이 여호와시며,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체이시지요. 삼위일체 진리는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본문 말씀에서 다음 구절도 유의해야 합니다.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을 비는 말은 아마 바울과 베드로의 모든 편지서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성령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인격성에 대하여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한 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감화력이나 능력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지요. 이런 주장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삼위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은혜와 평강을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빕니다. 편지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이가 삼위일체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은혜와 평강을 삼위의 이름으로 빕니다. 그래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8. 예,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에 대한 묘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네요.

답: 그렇지요. 이런 칭호는 계시록에 나타난 사건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칭호를 계시하신 것 같습니다. 이 칭호를 통하여 계시록 전체의 상황을 암시하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을 봅시다. 아버지에 대하여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그분은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계시록이 나타내는 전 역사적 기간에 철저히 역사를 감독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제와 미래 영원토록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9. 그런데 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답: 성경의 숫자 개념으로 일곱은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3:1에도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나신 분이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였고, 4:5에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바로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또 5장에도 6절에 일곱 눈이라고 하고 그것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계시록에서는 성령을 항상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곱 등불로, 일곱 눈으로 표현되기도 했지요. 등불과 눈은 상관관계가 있지요. 등불, 곧 빛이 없으면 눈은 기능을 상실합니다. 성령은 등불이며 동시에 눈이십니다. 그런데 일곱이라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수행하는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이사야 11:2 기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와 그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하였는데, 성령의 일곱 기능적 칭호가 기록되어 있지요. 완전하다는 것과 또한 이런 기능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서의 계시를 배경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일곱 영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곳이 없는데, 유독 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계시록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자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시록이 나타내는 전 역사적 기간에 철저히 역사를 감독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지요. 계시록은 일곱이라는 숫자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는 말이 일곱이라는 수를 사용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볼 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의 역사적 진행을 일곱으로 구분해서 계시하시는데, 그 일곱 구분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3장에 일곱 교회는 매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 이유인데, 하나님을 특이하게 표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0. 설명을 들으니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의 기록을 그냥 넘겨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늘 생각하면서 뜻을 살펴야 하겠네요.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수식이 장황하네요. 이것도 계시록의 내용과 특별히 관계있는 수식입니까?

답: 당연히 그렇게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기 나타난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그 보좌 앞에 계십니다. 삼위가 삼각형 형태로 좌정하고 계시는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보좌의 형상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이 지구의 모든 사물이 삼이라는 숫자로 형성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주가 삼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기본 구조가 삼이라는 생각입니다. 공간은 가로, 세로, 높이로 삼차원이지요.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로 삼차원이지요. 물질도 에너지, 운동, 현상의 삼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창조주가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삼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구약성경에 계시한 구주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9:24절에는 70이레 기간 동안 이루어질 일을 6가지로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 중에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말은 구주가 오셔서 성경이 계시한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으로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70이레에 포함된 예언을 다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둘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특성인데 십자가로 사망을 처리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므로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은 눅4:5,6의 말씀과 관련된 승리의 선언인데, 거기서 마귀가 이 세상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세력을 다 정복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권, 왕권을 완전히 되찾은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계11:15에 세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왕이심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6절로 넘어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했지요. 여기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심해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둘째 그 사랑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는 행동으로 드러냈다는 것, 셋째로 그렇게 해방된 우리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한 내용이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사업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도 계시록 내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표현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모두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계시록의 내용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신 삼위께서 계시록에 예언한 역사적 사실들이 이 세상 역사에서 진행되고 성취되는 동안 그렇게 표현된 분이로서 관여하시고 일하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1.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삼고 나라를 삼는다고 한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은 그런대로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나라를 삼았다는 말은 이해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밑에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출19:5,6에 기록된 약속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 이 약속에 이르리라고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실패했지요. 그러나 이 약속은 그들의 순종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고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일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롬15:16]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를 나라를 삼았다고 했는데, 나라는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는 암시가 들어있고, 예수께서 구원한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12.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요?

답: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0,21)고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문제지요. 이 말씀 중에 “너희 안에”라고 번역된 말은 “엔토스 휘몬”인데 “너희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엔토스는 물론 “안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이 말은 너희가 질문하는 이 중에 천국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곧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천국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는 그 모신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마12:28절을 목사님이 읽어보세요.

[마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중생하여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예수께서 일하시는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도 되지요. 아무튼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 인격이 천국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께서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인격 천국을 이루고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3.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을 약속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